

이 보도자료는 2022. 9. 1. 09:00에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

공보담당관 인권보호관 정우식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453

보도자료
2022. 9. 1.(목)

범죄수익 전문 세탁조직 중간 수사 결과

- 지역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세탁책 4명 구속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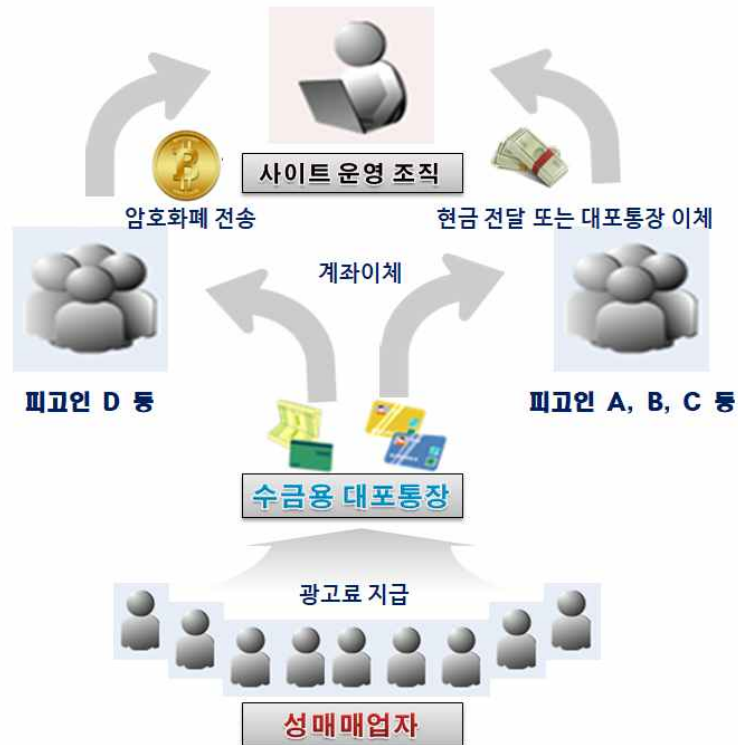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-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(부장검사 홍완희)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관련 범죄자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하는 조직을 적발하여,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,
- 동남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1)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할 목적으로,
 - 유령법인 명의 대표통장으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아 여러 차례 다른 대표통장으로 송금한 후 국내 및 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반복하여 매매(7억 원)하거나, 대표통장 수십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후 현금으로 인출(7억 4천만 원)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전문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 하였음
- 해외로 도주한 공범에 대하여는 인터폴 적색수배, 여권무효화 조치를 통해 추적 중이고, 성매매알선사이트 외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익금 세탁에 대해서도 수사 중임

1) '○○○○의밤' 사이트는 대구·경북지역 최대 규모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로 '○○의밤', '○○○밤', '밤○' 등 이름 및 주소를 변경하며 회원제로 운영되고, 사이트에 등록된 업소에 대한 성매매 경험 후기가 1만 개가 넘으며, 6개월 기간 동안 수령한 광고비(업소당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)는 11억 원이 넘어 사이트에 광고된 성매매업소는 수백 개 이상으로 추정됨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전체 범행 개요



- ▶ 대구·경북지역 소재 성매매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0~30만 원 정도의 광고료 수수
- ▶ 불법 광고 수익(6개월 기준 11억 원 이상)은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세탁조직에 이체됨
- ▶ 피고인들은 ① 여러 계좌로 순환 이체하여 추적 어렵게 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거나, ② 암호화폐를 매입한 다음 해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

● A (35세)

- '21. 10.경 B, C 등 하위 직원들을 포섭하고, 계좌 및 휴대전화를 제공 받아 17억 8천만 원을 유령법인(회사로 등기만 되어 있고 실체는 없는 법인) 명의 대포계좌로 이체하고 300여회에 걸쳐 3억 2천만 원을 출금하고, 본인이 인출하거나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에서 자신의 몫을 제한 후 성매매알선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

※ A에게 포섭된 하위 직원 O명은 도주하여 현재 추적 중